

학병의 사명과 ‘위안부’의 운명

이지은**

김성중의 「여명의 눈동자」(1975~1981)를 중심으로*

초록 이 글은 김성중의 「여명의 눈동자」를 통해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의 청년들, 즉 학병과 ‘위안부’가 해방공간과 6·25전쟁을 거치며 어떻게 다른 역사적·사회적 위치를 부여받는지 살펴본다. 학병과 ‘위안부’는 ‘군인-위안부’라는 비대칭적 권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민족으로서 연대감을 가진다. 그러나 제국을 대타항으로 삼은 동료의식은 ‘제국-식민지’의 역학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여명의 눈동자」에서 학병으로 징집된 대치와 하림은 ‘위안부’로 동원된 여옥을 사랑하지만, 해방 이후 그녀에 대한 태도에는 변화를 보인다. 둘은 배제와 신화화라는 상반된 방식으로 여옥을 대하지만, 이는 ‘위안부’ 피해자를 역사적 주체로 상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통한다. 무엇보다 하림과 대치가 학병 동료들과 함께 국가 독립/건설을 도모하는 데 반해, 여옥은 역사적 과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즉, 학병이 역사적 ‘사명’을 통해 세대로서 구성된다면, ‘위안부’ 피해자는 탈역사적인 여자의 ‘운명’에 귀속되는 것이다. 더하여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세대로부터 시작하려는 「여명의 눈동자」의 서사적 기획은 해방공간의 좌우의 대결구도를 ‘학병 대 학병’으로 재편하면서, 관동군·일본군 출신자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식민주의를 소거한다. 이러한 서사는 ‘위안부’가 민족수난사의 상징이 됨으로써 역사적 주체의 자리에서 배제되는 과정뿐 아니라,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했던 군·위안부’가 은폐되는 메커니즘을 보여 준다. 이 글은 ‘학병세대’로 대표되는 일제말기 청년의 표상에 ‘위안부’라는 존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나아가 역사의 상징이 됨으로써 역사에서 배제되는 ‘기억의 정치’의 역설적인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점검한다.

주제어 일본군 ‘위안부’, 학병, 태평양전쟁, 기억의 정치, 김성중, 여명의 눈동자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이 지원한 집담회의 성과임.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선임연구원

1. 전장의 식민지 청년들

한국사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론화한 여성학자이자 운동가인 윤정옥은 자신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해방 후에 서울로 다시 왔지.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학도병 갔던 사람, 강제 징용 갔던 사람, 보국대 갔던 사람, 다 오는데 여자가 돌아왔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 거기서부터 내가 이거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때가 스무 살이었어. 그래서 학도병 나갔던 사람에게 물어봤어. 그런데 깜짝 놀랄 이야기를 들었어. 이 여자아이들이 먹을 시간도 없이 밤새도록 그랬다는 거야.¹(강조-인용자)

1925년생인 윤정옥은 열일곱 살이 되던 무렵(1943년) 남자는 “학도병 나가라고 하고, 여자들은 정신대로 나가라”² 그러던 때라 ‘정신대’에 끌려갈 것이 두려워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한다. 윤정옥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게 된 건, 그때 사라진 동년배 여자들을 잊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방 후 윤정옥은 돌아오지 않는 여자들의 소식을 ‘학도병’(학병)³을 통

1 윤미향(2016), 『25년간의 수요일』, 사이행성, p. 122.

2 윤미향(2016), p. 121.

3 여기서 ‘학도병’은 ‘학병’을 의미한다. 학병은 ‘반도인학도특별지원병제’(1943.10. 공포)로 인해 1월 20일 입대한 이들이다. 징집 제도는 ‘지원’ 형태를 띠고 있으나, 미지원자에게 국가총동원법에 의거 징역이나 징용을 부과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사실상 ‘강제 징집’이었다. 1938년 시행된 육군특별지원병령에 의해 자진 입대한 조선인은 대체로 계급적 상승을 위해 지원한 하층 출신으로 학병 지원과는 성격을 달리한다. 김건우(2018), 「운명과 원한」, 『서강인문논총』 52,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107-108 참조. 다만, ‘학도병’(學徒兵)이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학생 병사를 의미하므로 6·25전쟁 당시 학도 의용군을 가리킬 때도 사용된다. 『1·20학병사기』 1권의 서문에도 ‘학도병’과 ‘학병’은 혼용되어 쓰이고 있지만, 서문의 저자는 6·25전쟁의 학도병과 자신들을 구별하고 있다[안

해 알게 된다. '위안소'라는 사건의 장소가 한반도 바깥의 전선(front line)이었으므로 '위안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이들은 전장의 병사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귀환 학병들은 '위안부'와 함께 제국의 전쟁에 동원되었던 식민지의 청년들이자, 그녀들의 소식을 고국에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⁴ 그런 점에서 위안소에서의 삶을 본격적으로 그린 김성종의 「여명의 눈동자」(1975~1981)나 윤정모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1982)가 '위안부'와 학병을 함께 그리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한국문학연구에서 제국의 전쟁에 강제동원된 청년들은 각각 다른 범주에 놓여 있다.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는 '위안부'가 '재현된' 텍스트를 계보화하고,⁵ '위안부' 담론이 구성되어 온 의미론적 지층을 밝히는 양상으로 진행되었는가 하면,⁶ 학병 연구는 세대론적 구분에 입각하여 문학장 안팎에서의 학병의 '수행'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표적으로 김윤식은 '일제말기 이중어 글쓰기', '해방공간의 글쓰기'의 연속선상에서 '학병세대의 체험적 글쓰기'를 연구하였는데, 이때 '학병세대'는 두 가지 층위에서 문체성을 지닌다. 하나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체험과 관련된 글쓰기이고, 다른 하나는 문학사적 공백을 메꾸는 세대위치다. 한국문학사에서 식민지 시기 민족주의자들과 카프계의 대립이 해방 공간에서도 반복·증폭되고 있다면, 학병세대는 문학사가 건너뛰고 있는 일제말기라는 시대를 채우고 있는 것이다.⁷ 한편, 김건우는 이 주제를 지성사연구의 대상으로 확장하면서 학병

동준(1987), 「서문」, 『1·20학병사기』 1(1·20동지회 편), 삼진출판사, p. ii. 오늘날 한국문학연구에서는 1943년 '반도인학도특별지원병제'에 따라 징집된 이들을 '학병'이라 지칭하고 있다.

4 이지은은 귀환자들의 목격담, 곧 '소문'이 '위안부' 피해자보다 먼저 도착하여 해방공간에서 '목격-침묵'의 이중 담론을 형성했다고 지적한다. 이지은(2023),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장 참조.

5 김소륜(2018),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국제어문』 77 국제어문학회; 장수희(2021), 「일본군 '위안부' 서사자료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 이지은(2023).

7 김윤식(2015),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학병세대의 위상」, 『본질과 현상』, 본질과 현상사, p.

세대를 규정하는 사회적·역사적 계기에 ‘국가’를 놓는다. 학병들의 집단 기억(기록)인 『학병사기』가 그들 스스로에 의해 ‘조국의 재건을 위한 학병들의 고난 극복과 영광 쟁취의 기록’이라 규정될 때, ‘국가’야말로 그들의 경험을 정당화하고, 집단적 인식들을 형성하는 매개가 된다.⁸ 이에 학병세대는 국가의 재건, 즉 대한민국의 설계와 한국 우익의 기원적 자리에 놓이게 된다.⁹

흥미롭게도 학병 연구의 두 가지 중핵, 즉 ‘글쓰기’와 ‘국가 건설’의 문제는 전장에 함께 동원되었던 ‘위안부’가 ‘세대’ 연구에서 탈각되어 온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 준다. 물론 가부장제 규범과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여성들에게 성폭력 피해를 말할 수 없게 하는 근본적인 억압이지만, 귀환한 ‘위안부’가 처해 있던 취약성을 가부장제로만 돌리는 일은 문제를 단순화하기 쉽다. 그녀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서사화할 수 있는 말하기의 장을 오랫동안 갖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식민지-하층-여성’이라는 중첩된 취약성으로 인해 리터러시(literacy)를 갖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식민 잔재의 청산보다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에 사회적 역량이 집중되었던 해방공간에서 돌아온 여자들은 ‘바람직한’ 국민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해방 이후 다수의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숨기거나, 사회에서 소외된 장소에서 정착하게 된다.

이에 학병들이 “구성원들로 하여금 ‘사회적으로’ 행동하도록 집단으로 묶는”, “구성원들의 의식을 구성하는 내용들의 커다란 유사성”¹⁰을 공유하는 ‘세대’로 묶일 수 있었다면, ‘위안부’는 유사한 피해의 경험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구성되지 못했다. 해방 후 귀환한 학병들에

21, 26.

8 김건우(2018), p. 120.

9 김건우(2017),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책방.

10 카를 만하임(2013), 이남석 역, 『세대 문제』, 책세상, p. 72.

겐 “역사적-사회적 통일성이라는 공동 운명에 대한 참여”,¹¹ 즉 ‘건국 사업’, ‘사회 전반의 건설 사업’으로 나아갈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기에 ‘국가건설’이라는 공동의 과업에 참여한 이들은 실제 학병 징집자든, 기피자든, 면제자든 할 것 없이 모두 ‘학병세대’로 포괄될 수 있다. 그러나 귀환한 ‘위안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할 사회적 계기가 없었고, 그렇기에 집단을 형성할 수도 없었다. 또한, 그녀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역사적 과업도 없었다. 결국 그녀들에게 남은 현실은 정상가정에 편입되든 안/못 되든 가부장제를 규범으로 하는 여자의 운명이었다.¹² 요컨대, 귀환한 학병들에게 역사적 ‘사명’이 주어졌다면, ‘위안부’에겐 여자의 ‘운명’이 주어진 셈이다.

이 지점에서 김성중의 「여명의 눈동자」(『일간스포츠』, 1975.10.1.~1981.3.2.)¹³의 문제성이 포착된다. 김윤식은 “학병이 본 조선정신대(한국 측 용어)는 관찰의 대상일 수 없는, 그 자신이 정신대이자 학병이었음에서 왔기에 그 분리 불가능한 것”¹⁴이라 하였으나, 소설을 통해 보건대 국민국가 건설의 주역인 학병과 국민국가의 타자였던 ‘위안부’의 관계는 정치적 역학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달라진다. 이는 오늘날 담론장에서 학병과 ‘위안부’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의 차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명의 눈동자」는 ‘위안부’ 문제를 외설적으로 소비한 혐의가 짙은 작품이다. 이 글은 소설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한 다음, 그럼에도 「여명의 눈동자」가 내포하고 있는 문제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 글은 김성중의 「여명의 눈동자」를 대상

11 카를 만하임(2013), p. 69.

12 크리스티나 베닝하우스는 ‘세대’ 구성이 역사적 조건에 따른 사회적 행동을 전제한다는 측면에서 이 개념 자체가 젠더화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여성들에게는 애초에 사회적·정치적 영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크리스티나 베닝하우스(2014), 「세대의 성: 1930년대의 세대적 특성과 남성성의 관계」, 『세대란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p. 192].

13 「여명의 눈동자」는 연재되는 중에 단행본으로 출간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 이후 「여명의 눈동자」는 여러 차례 단행본으로 재출간되는데, 소책터 제목을 비롯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에 본고는 『일간스포츠』에 연재된 최초 게재본을 대상으로 삼았다. 이하에서는 작품 제목과 연재 횟수, 연재 날짜만 표시한다.

14 김윤식(2012),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p. 152.

으로 식민지-해방공간-6·25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정치적 역학 속에서 학병과 ‘위안부’의 관계가 어떻게 재편되는지 살펴본다. 또한, 끝내 죽음으로써 역사의 상징이 되는 주인공 여옥의 삶을 통해 오늘날 ‘기림의 정치’를 반성적으로 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¹⁵

2. 제국의 폭력과 ‘학병-위안부’의 연대

「여명의 눈동자」는 ‘위안부’로 차출된 여옥, 대학을 다니다 학병으로 징집된 대치, 하림을 교차하여 보여 주면서 소설의 첫머리를 시작한다. 제국의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조선의 청년들은 부대를 따라 전선을 이동하면서 만나고 헤어짐을 반복한다. 먼저, 여옥과 대치는 중국 전선의 위안소에서 만나 사랑을 나누고, 여옥은 대치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다. 그러나 얼마지 않아 대치는 버마로, 여옥은 사이판으로 이동하면서 둘은 헤어진다. 대치는 일본군이 대패한 인팔작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중국 국민당 군대에 투항하고,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상하이 임시정부 진영, 중국 공산당 부대, 팔로군 등을 거치며 코뮤니스트로서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다. 한편, 여옥은 사이판 위안소에서 하림을 만나게 된다. 하림은 임신한 여옥을 각별히 보살피 주고, 여옥은 하림에게 의지한다. 미군의 사이판 함락 이후

15 『여명의 눈동자』는 TV드라마, 영화, 뮤지컬 등 다양한 매체로 각색되어 대표적인 ‘위안부’ 서사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작품론도 축적되고 있다. 각색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이 변화되었으나, 정작 원작 소설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대와 국경을 횡단하며 생산된 ‘여명의 눈동자’ 서사에 관해서는 장수희(2023), 「여명의 눈동자들: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시대 변역과 월경」, 『한국연구』 15, 한국연구원. 그 외 드라마로 각색된 연구에 관해서는 백두산(2018), 「민주화 이행기 텔레비전 드라마의 분단 재현 방식: <여명의 눈동자>를 중심으로」, 『스토리&이미지텔링』 15,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권성훈(2023), 「김종학 드라마의 이데올로기 구조와 문학적 재현방식: <여명의 눈동자>(MBC, 1991)와 <모래시계>(SBS, 1995)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89, 한국비평문학회 참조.

하림과 여옥은 미군 OSS요원으로 발탁되고, 해방 직전 조선에 침투하여 미군의 지시하에 항일 공작을 전개해 나간다. 해방 이후 팔로군에서 활약 하던 대치까지 귀환하게 되자, 세 사람은 다시 조우하여 사랑과 갈등의 드라마를 이어 나간다. 「여명의 눈동자」는 세 사람의 삼각관계를 주요 서사 구조로 하여 일제말기부터 해방공간, 6·25전쟁까지 한국현대사의 파고를 헤쳐 나간다.

이처럼 식민지 출신의 세 청년은 역사의 구체적인 국면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이어 가는데, 소설 세계의 리얼리티를 위해 작가는 여러 자료를 섭렵했던 듯하다. 특히 당시엔 '위안부'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작가는 일본에서 생산된 자료를 주로 참조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⁶ 단적인 예로, 각 지역에서 '위안부'로 차출된 여성들이 경성 조지아 백화점에 수용되어 있는 장면(13회)이나, 위안소 규정 및 위안소 생활의 묘사(52회) 등은 1970년대 대표적인 '위안부' 관련 저작인 센다 가코(千田夏光)의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 1973)¹⁷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여명의 눈동자」는 태평양전쟁의 전개 과정과 전세, 각 전투지의 상황 등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실제 역사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사이판 함락과 집단 자결(옥쇄)과 같은 극적인 장면은 한국에서도 '실록'이라는 관사가 붙은 전쟁소설류에서 자주 차용되던 것인데, 「여명의 눈동자」는 일본의 전쟁기록물에 배어 있는 군국주의적 비장미를 비교적 약화시키면서, 조선인 '위안

16 김성중은 「후기」에서 “일본군의 제물로 바쳐진 여자정신대 출신 종군위안부에 대한 자료가 전무하다는 사실”에 개탄하기도 하고[김성중(1982), 「후기」, 『여명의 눈동자』 10, 남도, p. 409], 훗날 다른 자리에서는 “이 작품[여명의 눈동자-인용자]을 쓰면서 제가 안타까웠던 부분도 정신대의 조명을 일본쪽 기록이나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김문숙·김성중·성병오·장정임 좌담(1992), 「끝나지않은 민족수난사, 완치는 스스로 강해지는 길뿐」, 『현장』 3월호, 예술시대사, p. 48].

17 센다 가코의 『從軍慰安婦』(双葉社, 1973)는 바로 이듬해에 같은 제목으로 한국어로 번역·출간 되었다[千田夏光(1974), 정혜수 역, 『종군위안부』, 신현실사].

부'와 학병의 입장에서 전장을 재구성한다.¹⁸

한편, 내부적으로 「여명의 눈동자」는 학병과 '위안부'를 친일 문사 선배들과 세대론적으로 구분한다. 소설 초반 여옥이 '위안부'로 강제동원되는 대목 중에는 편집자적 논평으로 “조선민족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던 시기” “이런 암흑의 시대에 …… 조선의 많은 지도급 인사들이 얼굴에 철관을 깔고 친일행위를 했”¹⁹음을 지적하면서 대동아담론에 포섭된 연설, 부인근로대의 활동을 찬양하는 시, 황국 신민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정신 개조를 해야 한다는 비평 등을 나열하고 있다. 서지를 확인해 보건대, '어느 여류시인', '여류시인 N', '비평가 K'라고 지칭된 이들은 각각 모윤숙, 노천명, 김문집이다.²⁰ 이와 같은 세대론적 구분은 학병의 수기에서 자주 발견되는 문법으로, 예컨대 해방 직후 발표된 어느 학병의 글에서는 '귀환 학병'의 집

18 예컨대, 『實錄太平洋戰爭』(실록태평양전쟁)(中央公論社, 1960) 4권에 실린 당시 사이판 수비대 소위 아오키 다카시(青木隆)의 「サイパン海蒼く」(사이판 바다는 푸르게)나 육군 간호부 스가노 시즈코(菅野静子)의 「絶望の道」(절망의 길)에는 동굴 속 피란 장면, 아이를 죽인 미친 여자, 간호원들의 집단 자살 등의 에피소드가 매우 비장하게 그려진다. 이는 이호원의 『태평양전쟁』 3(한림출판사, 1969)에도 차용·재구성되어 있으며, 또 「여명의 눈동자」에도 변용되어 등장한다. 요컨대, 다양한 주체가 섞여 있었던 전선(front line)의 기억은 사후적으로 재편된 국민국가 체제 내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본질적으로 전선의 기억인 만큼 국경(border)을 넘나들면서 번역 및 재구성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국경을 유통하는 태평양전쟁 기억의 번역 및 재구성에 대해서는 후고의 과제로 남겨 둔다.

19 「여명의 눈동자」(14), 1975.10.17.

20 「여명의 눈동자」에 인용된 모윤숙의 논설에는 『친일문학론』과 동일한 오타가 발견되어 흥미롭다. 모윤숙의 논설 「여성도 전사다」(『대동아』, 1942.5.)에는 “우리의 가슴에 대화혼(大和魂)의 무형한 창검을 가져야겠습니다”(p. 114)라는 구절이 있는데, 『친일문학론』은 이 글을 인용하면서 해당 구절의 ‘창검’을 ‘총검’으로 잘못 옮겨 놓았다[임종국(1966),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p. 253]. 「여명의 눈동자」 역시 ‘창검’을 ‘총검’으로 잘못 인용하고 있다[「여명의 눈동자」(14), 『일간스포츠』, 1975.10.17.]. 이는 김성중이 『대동아』에 실린 모윤숙의 원문을 본 것이 아니라, 『친일문학론』을 보고 인용한 것임을 의미한다. 그 외에 노천명, 김문집의 글도 모두 『친일문학론』에 인용되어 있는 부분이다. 김성중은 일본의 재침략에 대한 위기의식과 친일 미청산의 문제의식하에서 쓰인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을 매개로 해방 이후 친일 문제에 접근했던 것으로 보인다.

단적 정체성이 일제 말 지원병을 권유하던 “선배명사들”과 대타적으로 구성된다.²¹ 이러한 대타의식은 1970년대에 이르러서도 학병세대를 드러내는 중요한 원리였다.²²

이때 「여명의 눈동자」는 일제 말기 전쟁동원 세대로서 학병과 ‘위안부’를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이들이 제국의 권력 장치 내부에서 사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참의 강요로 위안소를 찾은 대치는 ‘위안부’가 된 조선인 여성 여옥을 보고 그녀에게 연민을 품는다. 대치는 간식거리 등을 가져다주며 여옥을 돌봐주기만 하고 그녀와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 그러다 대치가 다섯 번째 찾아갔을 때 둘은 서로에 대한 욕망을 표현하고, 관계를 맺게 된다. 이들은 ‘위안소’라는 전시성폭력 시스템 속에서 ‘사랑’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들의 감정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동시에 그것이 위안소가 만들어 내는 ‘군인-위안부’라는 비대칭적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치와 여옥이 식민지민으로서의 상호 연민과 동질감을 바탕으로 ‘군인-위안부’라는 관계를 ‘극복’하고 사랑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식민지민이라는 동류의식은 제국의 폭력장치가 만들어 내는 권력관계마저 부정하고 저항하게 하는 강력한 힘으로 그려진다.

21 “우리들 학병은 이제 돌아왔습니다. 『너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조선을 살리는 것이고 오로지 너희들의 피를 흘리는 것이 만이 조선의 삼천만동포를 영원히 살리는 단 한 개의 길이다』. 이러케 우리들의 선배들이 불타는 애국심으로 우리들의 손을 잡을 듯이 권유하고 다니는 그 모양이 전선 천리 뜻 아닌 총을 잡고 달리고 있는 기역과 함께 눈앞에 서니 하게 보입니다.”[이춘영(1946), 『학병은 도라왔습니다』, 『학병』(창간호), 학병동맹본부, p. 10]

22 1977년 백기완이 장준하를 소개하는 글에서도 “일제의 침략전쟁의 희생물이 되어야할 운명에 놓인 청년 장준하”를 피롭게 한 것이 무엇보다 “피 흘리는 조국의 현실을 외면한 채 원수 왜놈 친황이 강요하는 충효(忠孝)와 총화단결을 우리들에게 강요하는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의 만행을 보고 듣는 일”이었다고 전한다. 이 또한 친일 문사들의 글을 임종국의 『친일문학론』에서 인용하고 있다[백기완(1977), 『인간 장준하: 고인의 이주기에 붙여서』, 『대화』 9월호, 한국크리스찬아카데미, p. 134].

실제로 전장에서 조선인 ‘위안부’를 만난 학병의 수기에서도 식민지 민족으로서의 연대감은 자주 발견된다. 학병으로 징집되어 버마 전선에 배치되었던 이가형은 여러 형태의 체험적 글쓰기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한 동류의식과 연대감을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전장에서 조선인 ‘위안부’를 만나 “순간적으로 혐오와 측은함이 뒤섞인 기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으나, 곧이어 “나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는, “일본군에게 지원한 조선의 청년”이었다고 자조한다. 학병이 돈을 벌기 위한 고용병이 아니듯, ‘위안부’ 또한 돈을 벌기 위한 매춘부가 아니라고도 한다. 이러한 생각 끝에 이가형은 학병이나 ‘위안부’나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의 제물”이라고 결론을 내린다.²³ 학병과 ‘위안부’는 제국의 폭력적 제단에 바쳐진 불쌍한 민족의 제물로서 동질감을 획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옥과 하림은 사이판 전장의 위안소에서 처음 만난다. 여옥이 중국 전선에서 대치와 헤어지고 사이판으로 옮겨 왔다면, 하림은 관동군 방역급수부대, 소위 731부대라 불리는 곳에 있다 본격적인 세균전 수행을 위해 사이판에 배치되었다. 하림은 위생병으로서 ‘위안부’의 검진도 담당했기 때문에 여옥과 더욱 가까워지게 된다. 이들은 미군의 사이판 공세 때 잠시 헤어지지만, 포로수용소에서 재회한다. 여옥과 하림은 미군 OSS요원으로 발탁되어 훈련을 받고, 1945년 초 조선에 잠입하여 미군의 지시하에 조선 독립을 위한 공작을 전개해 나간다. 그러나 이들은 해방 직전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모진 고문을 당한다. 경찰의 비인간적인 고문은 점점 더 강도를 높여 급기야 여옥과 하림에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성교를 하기를 강요한다.²⁴ 이 에피소드는 ‘위안부’ 문제를 상당히 외설적이고 관음증적으로

23 이가형(1964), 「버마전선패잔기」, 『신동아』(1964년 11월호), 동아일보사, p. 277. 본문에서 언급한 대목은 다음과 같다. “나도 그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일본군에게 지원한 조선의 청년이 아니었던가. 나도 뉘을 판 찌은 몸이 아니었던가. 다만 다른 점은 돈을 벌기 위한 고용병이 아니었고 돈을 벌기 위한 매춘부가 아니라는 점이다. 가난하고 불쌍한 민족의 제물—바로 우리는 이 제물이었던 것이다.”

24 「여명의 눈동자」(658), 1977.11.25.

활용하는 「여명의 눈동자」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지만, 동시에 학병과 '위안부'가 어떠한 권력적 힘에 의해 강제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하다. 여옥과 대치, 여옥과 하림이 관계를 맺는 장소, 곧 위안소와 감옥은 학병과 '위안부'의 관계가 제국의 폭력장치 속에서 그것에 대항하며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지적해 두고자 하는 점은 「여명의 눈동자」에서 학병과 '위안부'의 연대가 제국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림과 여옥이 일제 경찰에 붙잡힌 건 그들이 OSS요원으로 항일 공작을 전개했기 때문이다. 이때 이들이 파트너로서 함께 일할 수 있게 한 것은 '미국 군대'라는 신제국의 힘이었다.

『이교육에는 남녀의 구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있을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남자라고 생각해야합니다.』

『그렇게생각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언제나 남자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군복을 줄인거니까 맞을겁니다.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부터가 달라질 겁니다.』²⁵

인용문은 여옥이 미군 OSS요원으로서 처음 훈련을 받게 된 장면이다. 미군 교육관은 이 교육에 남녀 구별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그녀 역시 역사의 과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인용문에서 확인되듯, 남성 군복을 통해서 부여되는 OSS요원의 자격은 기실 성별의 '구별 없음'이 곧 '오직 남성'이라는 의미임을 드러낸다. 여옥은 '제국-군인-남성'이 됨으로써 독립국가 건설이라는 역사적 사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즉, 제국의 폭력기구인 위안소/감옥에서 조선인 학병과 '위안부'가 제국에 대한 저항을 통해 '사랑'을 할 수 있었다면, '미군복'은 여옥을 '제국-남성-군인'으

25 「여명의 눈동자」(342), 1976.11.12.

로 주체화함으로써 그녀가 학병의 파트너가 되고, 국가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준다. 역설적이게도 제국의 권력은 학병과 ‘위안부’를 민족의 제물로, 혹은 제국의 군인으로 만듦으로써 이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달리 말하면, 제국이라는 거대한 폭력/권력을 전제하여야만 학병과 ‘위안부’가 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3. 국가 건설의 사명과 대결구도의 재배치

그렇다면 제국과 식민지의 역학 속에서 연대했던 학병과 ‘위안부’는 해방공간에서 각각 어떻게 변화할까. 「여명의 눈동자」에는 새로운 독립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학병세대를 호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 이들은 국민국가 건설을 주도해 나갈 만한 엘리트 집단이자, 친일 혐의로부터 자유로운 세대였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군에서 탈영한 학병들은 중국군이나 광복군 등에 합류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식민잔재 청산의 주체로서의 도덕적·정치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여명의 눈동자」 또한 해방공간의 역사적 주역으로서 학병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하림과 대치의 항일 무장 투쟁의 행적을 강조한다. 대치가 중국 국민당, 공산당 군대를 두루 거쳐 팔로군 내 조선인 병사들을 이끌고 귀환한다면, 하림은 OSS요원으로서 해방 직전 “경성 북방 40킬로미터 지점”²⁶으로 침투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한다. 김구 주석은 하림에게 친일파 박춘금의 대의당을 분쇄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하림은 옛 친구 조문기, 강윤국, 유만수와 모의하여 부민관 폭파 사건을 감행한다.

이때 소설에서 언급되고 있는 하림의 친구들은 실제 부민관 폭파 사건

26 「여명의 눈동자」(399), 1977.1.22.

을 일으킨 항일 투사들이다.²⁷ 이들 세 사람은 “산업전사라는 명목으로 일본에 끌려왔다가”²⁸ 장하림과 함께 지하조직에 참여했던 인물들로, 지금은 “영장이 나왔는데 입대를 하지 않”은 “기피자들”²⁹로 그려진다. 흥미로운 점은 부민관 폭파 사건을 일으킨 항일투사들이 하림과는 그 출신 배경이나 이념적 지향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³⁰ 기실 부민관 폭파의 주역들은 학병 엘리트 그룹도 아니었을뿐더러, 누군가의 지령을 받고 테러를 감행한 것도 아니었다. 1945년 7월 24일 일본 패전 직전에 일어난 부민관 폭파 사건은 당시 언론 통제로 인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터라, 1973년 『조선일보』 기획 시리즈 「이설한국사」(異說韓國史), 그리고 2000년대 TV드라마 〈야인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배후에 대한 여러 서사가 만들어졌다.³¹ 김성중 역시 부민관 폭파 사건에 관한 또 하나의 배후설을 만들어 낸 셈인데, 그가 만든 서사는 공장노동자 출신 청년들의 항일투쟁을 학병세대의 활약으로 돌리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명의 눈동자」가 기획하는 학병의 국가 건설 서사는 이와 같

27 「세 주인공의 오늘 36년간의 항일투쟁 마지막 거사 … 부민관폭탄사건 열아홉돌」, 『동아일보』, 1964.7.25.; 「훈장 없는 3독립투사 정용 갔다 탈출…일생을 항일에」, 『경향신문』, 1970.8.14.

28 「여명의 눈동자」(534), 1977.7.2.

29 「여명의 눈동자」(534), 1977.7.2.

30 1927년생 조문기는 ‘일본강관주식회사 훈련공 모집’ 광고를 보고 가와사키 공장으로 동원되었다가, 그곳에서 자신보다 4살 더 많은 유만수를 만난다. 둘은 1944년 5월경 일본강관주식회사 파업을 주도하여 일본 전역에 지명수배 되고, 1945년 1월 귀국하여 같은 회사 훈련공 출신 동지들을 규합하여 대한애국청년당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한다. 부민관 폭파 사건의 세 사람은 모두 일본강관주식회사에서 만난 사이이다. 1948년 조문기와 유만수는 남한 단독선거에 반대하여 인민청년군 활동을 하다 검거되기도 하고, 조문기는 1959년 ‘이승만 대통령 암살, 정부전복음모 조작 사건’으로 투옥되는 등 좌익 혹은 반정부 인사로 탄압받기도 했다. 이에 관해서는 조성운(2021), 『『슬픈 조국의 노래』를 통해 본 趙文紀의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pp. 211-235.

31 『조선일보』 기사에 실린 배후설에 대하여서는 같은 해의 「“겨레위한 젊은 열기로…”」(『조선일보』, 1973.7.25.)라는 기사, 또 그해 말 「고침」(『조선일보』, 1973.12.27.) 참조. 이에 관해서는 조성운(2021), pp. 235-237.

은 단편적인 에피소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림이 OSS요원으로 해방 직전 조선에 침투하는 것 자체가 일제의 패망 국면에서 학병들이 이루지 못한 한(恨)이었다. 버마 전선에 배치되었다 탈영하여 OSS요원이 된 박순동은 고된 훈련을 받으며 조선침투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침투] 후보지 선정통지가 오기도 전에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되었다. (중략) 시원섭섭이란 말은 이때에 쓰기 위해서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의 땀 어린 훈련은 그로써 무위의 종언을 고했던 것이다.”³² 일본의 패망으로 조선 침투 작전은 무산되고, 죽을힘을 다해 훈련을 받던 탈영 학병들은 다시 포로 신세로 전환되고 만다. 이에 대해 박순동은 미군에 항의하지만, 미군 대위는 호의를 베풀어 주려 해도 조선인 포로를 받아줄 기관이 없다고 설명한다. 모든 노력과 계획이 무위로 돌아갔을 때, 박순동은 절망감을 감추지 못한다. “나는 원래 「버마」에서 포로가 되었고 지금도 결국은 하나의 포로일 뿐입니다. 나는 포로라는 나의 신분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따위의 그동안의 일은 모두 잊어버리고 싶습니다.”³³

이러한 사정은 중국 전선에서 탈영하여 광복군에 가담했던 장준하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았다. 장준하는 1945년 5월 OSS대원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뒤, 한반도에 잠입하여 연합군의 상륙을 돕는 국내 공작, 그중에서도 경성지역 공작조 임무를 맡는다. 광복군 지도자들은 해방 후 혼란을 대비하여 장준하와 같은 인재를 사지로 내몰지 않고 싶어 했으나, 장준하는 “연합군과 어깨를 겨누는” “귀중한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자결 능력을 보여야” 한다며 작전 수행을 자임한다.³⁴ 공작팀은 낙하산으로 투하할 것인지, 잠수정을 타고 상륙할 것인지 세부 논의를 진행하며, “양양된 사기로 <조

32 박순동(1965), 「모멸의 시대」, 『신동아』 9월호, 동아일보사, pp. 378-379.

33 박순동(1965), p. 382.

34 장준하(1992), 『돌베개』, 세계사, pp. 291-292.

국에의 침투>를 영광으로 생각”³⁵하고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그러나 작전을 시행하기 직전 일본은 포츠담선언을 무조건 수락하겠다는 요청을 중립국을 통하여 연합국에 통고해 온다. “죽음을 택하려고 가는 마당에 떨어진, 너무나도 뜻밖의 희보”였으나, 장준하를 비롯한 광복군의 청년들은 “실망과 환희를 동시에 느껴야 했다.”³⁶ “조국이 광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큰 기쁨”이었으나, “이미 각오된 결심으로 조국광복의 기수가 되겠다는 기회의 상실은 안타깝도록 가슴 아픈 억울함이기도 했다.”³⁷

조선 침투 작전이 무산되고 말았던 허망함, 무장 독립투쟁을 조선 내에서 전개하지 못했던 원통함을 고려한다면, 하림이 해방 전에 조선에 침투하고, 미군의 파트너가 되어 임무를 수행하며, 또 친일파를 처단하는 등의 활약은 ‘도둑처럼 찾아온 해방’이라는 민족적 콤플렉스에 대한 서사적 극복의 시도로도 읽힌다. 하림의 서사는 장준하가 원통해 마지않는 꿈, 즉 “조국광복의 기수”가 되지 못한 탈영 학병의 억울함을 해소해 준다. 이로써 하림은 해방공간에서 개인 역량의 측면에서나, 또 도덕적 측면에서나 우위를 점하며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과업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된다. 해방이 되고 “여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자, 하림은 이렇게 다짐한다. “이제 남은 것은… 독립국가를 세우는 길이야. 반드시 나는 세우고야 말겠어.”³⁸ 중국 전선에서 활약한 대치 또한 소련군 장교를 찾아가 자신의 포부를 이렇게 밝힌다. “저는 이 땅에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³⁹ 이후 이들은 해방 공간의 주요 사건들, 이를테면 각종 암살 사건, 조선정판사 사건(1946), 9월총파업(1946), 4·3항쟁(1948), 여순반란사건(1948), 지리산 게릴라 투쟁(1951) 등에서 매번

35 장준하(1992), p. 296.

36 장준하(1992), p. 297.

37 장준하(1992), p. 298.

38 「여명의 눈동자」(695), 1978.1.9.

39 「여명의 눈동자」(736), 1978.2.26.

대결하게 된다. 남한에서 벌어진 좌우 갈등에서 대치는 게릴라 수장으로, 하림은 진압군 대장으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국가 만들기라는 역사적 사명의 주체로 학병을 호명하려는 「여명의 눈동자」의 서사적 기획은 해방공간의 갈등과 대립을 ‘학병 vs 학병’의 구도로 재배치함으로써 달성된다. 이를 가장 잘 보여 주는 대목이 제주 4·3항쟁에서 대치와 하림의 대결이다. 대치는 남로당 수뇌부의 지시로 제주도 폭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다. 여기서 그는 “일제시 대학을 다니다 학병으로 끌려간 전력이 있는 … 이름 있는 인텔리 공산주의자”이자 “제주도지구 남로당 총책임자”인 김달삼, 그리고 김달삼이 “학병출신자들을 끌어모아” 만든 “비밀군사조직”인 “인민해방군”의 청년들을 만난다.⁴⁰ 여기서 거론되는 이들은 4·3항쟁과 관련된 실제 인물들로, 이덕구는 소설 속에서도 “인민해방군 사령관”으로 등장한다. 이덕구가 게릴라전에 자신감을 보이자, 대치는 그에게 실전 경험이 있는지 묻는다. 이에 이덕구가 “경험은 없지만…해낼 자신이 있”다고 대답하자, 대치는 “해방될 때까지 팔로군”에서 “게릴라전이라고 하면 신물이 날정도로” 했던 이력을 말하며 제주도 인민해방군 청년들을 압도한다.⁴¹ 이로써 대치는 제주도 게릴라전을 진두지휘하게 된다.

한편, 미군정보국 내 방첩대(CIC) 소속 국방경비대 대위인 하림은 무장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로 향한다. 하림은 무장대 지휘부에 대치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에 그에게 협상을 제의하는 편지를 보낸다. 그러자 대치는 “쌍방간의 현재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이라면 협상에 응하겠다”라고 답신하며, “단 둘이 빈 손으로 만나 이야기”하자고 요청한다.⁴² 단신으로 만난 두 사람은 토벌군과 무장대가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지만, 끝내 하림은 대치를 자수하게 하진 못한다. 그런데 협상을 마

40 「여명의 눈동자」(1040), 1979.2.24.

41 「여명의 눈동자」(1041), 1979.2.25.

42 「여명의 눈동자」(1063), 1979.3.24.

치고 돌아온 그날 밤 하림의 숙직실에 자객이 침투한다. 하림은 다행히 생명을 구하지만, 자객의 배후가 CIC 지부책임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사태는 심각해진다. “CIC뿐만 아니라 경비대, 경찰, 각 관공서, 민간단체 등에 첩자들”⁴³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토벌대가 첩자들을 모두 검거하자, 무장대는 고립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토벌대 지원군이 섬에 도착함에 따라 무장대와 토벌대의 군사력 격차는 더욱 커지고, 무장대에 사실상 희망이 없어졌을 무렵 제주 남로당 총사령관 김달삼과 서울에서 파견된 최대치는 제주에서 빠져나간다.

「여명의 눈동자」가 그려내는 사건의 전개는 당시 알려진 실제 제주 4·3사건을 강하게 환기한다. 가령, 소설 속 하림과 대치의 협상은 초기 무장대 진압을 맡았던 제9연대장 김익렬 중령과 무장대 총사령관 김달삼 사이에 있었던 협상과 유사하다. 1948년 8월 『국제신문』에 실린 김익렬의 수기에 따르면, 국방경비대와 무장대는 뼈라로 의사를 주고받으며 협상 방법을 조율하였고, 무장대가 보낸 연락책을 통해 협상 시간과 장소를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김익렬은 당시를 회고하며 두 사람 모두 동족상잔을 멈추어야 하는 데 뜻을 모았다고 전한다.⁴⁴ 그러나 평화적인 해결을 모색하려 했던 김익렬의 협상은 무장대와의 타협으로 비취졌고, 이로 인해 김익렬은 직위해제된다. 이후 후임연대장으로 박진경 중령이 임명되었으며, 그는 3개 대대 규모로 증강된 제11연대를 지휘하며 강경토벌작전을 강행하였다.⁴⁵ 그러다 박진경이 군대 영내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주모자는 그의 부하 문상길 중위였다. 박진경의 장례는 경비대

43 「여명의 눈동자」(1070), 1979.4.1.

44 김익렬(1948), 「동란의 제주참전기, 제구연대장김익렬중령기(記)」(上-下), 『국제신문』, 1948.8.6.~8. 이 기사에서 김익렬은 무장대가 항복을 전제로 협상을 제의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김용철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한다. 이에 관해서는 김용철(2009), 「제주 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15-16.

45 정석균(2002), 「제주 4·3사건시 군·경의 토벌작전」, 『군사』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p. 9.

사령부 부대장(部隊長)으로 치러졌으며,⁴⁶ 암살에 연루된 자들(문상길 외 4명)은 군법재판에 회부된다. 공판과정이 신문지상에 중계되면서 범행동기 등이 보도되었는데, 나흘째 공판에서 저격범 손전호 하사는 “박 대령의 삼십만 도민에 대한 무자비한 작전공격은 전 연대장 김익렬 중령의 선무작전에 비하여 볼 때 그의 작전에 대하여 불만을 각지 않을 수 없었다”⁴⁷라고 밝힌다. 그러나 암살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토벌작전의 잔악성보다는 군내에 남로당계 세포조직이 있었다는 사실에 더욱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볼 때, 「여명의 눈동자」에 나타나는 대치와 하림의 협상, 하림 숙소에서의 자객 침투, 자객의 배후로 CIC 지부책임자 검거 등은 실제 사건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하림의 모델이 된 김익렬, 박진경 그리고 이들의 후임으로 임명된 최경록, 송요찬, 함병선 등은 모두 일본군 출신이다.⁴⁸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자,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는 만주에서 대유격전의 경험을 쌓은 일본군 출신 방공전사들을 제주도와 지리산으로 파견했다.⁴⁹ 당시 제주 사건을 다룬 기사를 살펴보면, “김달삼이라는 이십팔 세의 학병출신의 청년이 지휘하는 폭도들은 경찰에 대해서 여전히 항쟁을 계속하고 있다 한다. 국방경비대가 출동하면 대항 없이 종적을 감추는 그들이 ‘친애하는 경비대여 검정개(경찰관을 이렇게 부른다)를 타도하라’는

46 「고(故)박대령부대장엄숙집행」, 『경향신문』, 1948.6.23.

47 「공판제사일, 그는 양민의 원적이었소, 배, 손 등 박대령 살해동기를 진술」, 『국제신문』, 1948.8.16.

48 이재홍(2005), 「4.3의 두 얼굴, 김익렬과 박진경」, 『제주의 소리』, 2005.4.6. 이 기사에서는 평화적 협상을하려 했던 김익렬과 “초토작전에 불을 당긴” 박진경의 진압작전을 대조하며, “희생자 대부분 일본군 출신 연대장 4명 재임시절 발생”하였음을 강조한다. 역사학계에서도 제주 4.3사건, 여순사건 진압을 위해 대유격전 경험이 있는 일본군 출신의 군인들이 대거 동용되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김익렬 또한 일본군 소위 출신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사가 유도하는 서사처럼 군인의 ‘두 얼굴’이 단순히 일본군 출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지는 않는다.

49 허은(2002), 『냉전과 새마을』, 창비, p. 85.

빠라로 경비대에 대한 태도의 일단을 표시하고 있다고 한다”⁵⁰라는 구절을 발견할 수 있다.⁵¹ 김익렬이 연대장으로 있을 때까지 대결구도는 ‘학병이 지휘하는 무장대 vs 경찰’이었으나, 이후 경비대의 강경진압이 이루어지면서 ‘무장대 vs 토벌대(경비대·경찰)’로 굳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때 토벌군 지휘부에는 게릴라 진압 경력이 있는 일본군 출신이 배치되었다.

그러나 「여명의 눈동자」는 제주 4·3사건을 둘러싼 해방공간의 갈등 구도를 대치와 하립, 즉 ‘학병 vs. 학병’으로 재배치한다. 「여명의 눈동자」가 이렇게 해방공간의 대결구도를 다시 쓰고 있는 것은 국민국가 만들기라는 역사적 사명, 설령 그것이 좌우익 갈등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더라도, 그 역사적 과업을 친일 부역에서 자유로운 새로운 세대로부터 시작하려는 욕망의 결과로 해석된다. 미소 군정과 남북 단독 정부의 수립,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진 동족상잔의 비극은 신제국의 점령지가 된 약소민족의 설움으로, 혹은 새로운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할 갈등으로 서사화될 수는 있지만, ‘해방’공간에서조차 ‘일본군 출신의 군·경 vs 학병이 지휘하는 무장대’의 대결로 그려질 수는 없다. 더욱이 하립과 함께 남한 정부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여명의 눈동자」의 입장에서 ‘학병이 이끄는 무장대’와 대결하는 세력이 일본군 출신의 군부여서는 안 된다. 무장대와 대결할 상대는 그와 동등한 도덕적 자격을 갖춘 또 다른 ‘학병’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제국-식민지/점령지’의 대결구도가 재배치되고 국민국가 건설이 역사적 사명으로 주어지면서, 해방공간에서는 ‘학병-위안부’의

50 「제주사건 그 뒤의 이야기」, 『국제신문』, 1948.7.21.

51 당시 신문기사는 김달삼을 ‘학병 출신’의 무장대 총사령관이라 하고 있고, 「여명의 눈동자」 또한 그를 학병 출신의 인텔리 코뮤니스트라 소개한다. 그런데 김달삼은 김익렬과 같이 후쿠지야마(福知山) 육군예비사관학교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령, 고은의 「만인보-김달삼」에는 김달삼과 김익렬이 육군예비사관학교 동기생으로 등장한다. 이는 장창국의 회고 『육사졸업생』(1984)에 기인하는 것이라 하는데, 『4·3은 말한다』(2권)에 따르면 김달삼이 학병 출신이라거나 육군예비사관학교 출신이라는 점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제민일보 4·3 취재반(1997), 『4·3은 말한다』 2, 전예원, pp. 96-97].

연대 대신 정국을 주도하기 위한 학병 간의 갈등이 전면화된다. 이와 같은 서사 전략은 식민지 역사 및 친일 잔재로부터 단절하고자 하는 욕망은 실현하지만, 단절되지 못한 역사의 치부는 은폐하는 우를 범한다.

4. 여자의 운명과 역사로부터의 배제 혹은 초월

해방공간이 학병 사이의 대결로 재편되었다면, 여기에서 누락된 '위안부'의 역사적 위치는 어디일까.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옥을 바라보는 하림과 대치의 시선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학병과 '위안부'가 제국의 폭력/권력 속에서 연대를 형성하였다면, 해방공간에서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변모하였을까.

(가)

여옥은 일제에 짓밟힌 가장 대표적인 비운의 여성이다. 그러나 이제 일제 35년은 끝났다. 이제 그녀는 다만 치욕스런 역사의 잔영으로 그늘에 숨어살 수밖에 없다. 그것으로 그녀는 만족해야 한다. 그것이 역사의 가르침이다.

내가 그녀를 책임져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이것은 도피가 아니다. 그녀는 일본군에 끌려가 희생된 수만명의 조선 여성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그녀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누구를 붙잡고 늘어져 책임지라고 요구할 수 없음을 그녀들 자신이 잘 알고 있을 것이다.⁵²

(나)

야수의 무리들에게 날개가 잘리고 뼈마져 각히고 문드러진 어린 위안부

52 「여명의 눈동자」(727), 1978.2.16.

가 끝까지 살아남아 사랑하는 남자의 아기를 낳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의 신화였다. 여옥은 신화를 창조한 신비스러운 여자다.⁵³

그녀는 자신이 창조한 신화를 끝까지 지켰다. 아기를 건강하게 키우고, 그아기가 아장아장 아빠를 부르게 되고, 떼까지 쓰는 것을 보았을 때 하림은 그 신화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충격이었고 감동이었다.

그는 그 신화가 끝까지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했다.⁵⁴

(가)와 (나)는 여옥에 대한 대치와 하림의 생각이다. (가)는 여옥의 소식을 들은 대치의 내면으로, 그는 '위안부'가 낳은 아이를 '불결'하게 여기며,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여옥이 식민지 역사가 빛은 “대표적인 비운의 여성”임은 맞지만, 식민지가 끝난 이상 그녀는 “치욕스러운 역사의 잔영”으로서 새 시대의 그들에 “숨어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다. 대치의 논리대로 하자면, 두 사람은 똑같이 어린 나이에 전선으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귀향하였으나, 대치는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나아가고, 여옥은 지난 역사의 잔영으로 숨어야 한다. 반면, (나)는 여옥을 생각하는 하림의 내면이다. 그는 여옥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사랑 이상의 것이라고 말해 왔다. 하림이 보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전선에 끌려갔다가 아이까지 낳아 살아 돌아온 여옥은 그야말로 “하나의 신화”이다. 따라서 해방된 조국은 일본 군대에 끌려가 온갖 고생을 다하고 돌아온 여자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일본군 정신대로 끌려가 아기까지 낳아가지고 돌아온 여자, 그 끈질긴 생명력, 그것이 해방된 조국에서 꽃피지 못하고 희생된다는 것은 조선의 죄악”⁵⁵이다.

대치와 하림은 정반대의 시각을 보여 주는 듯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53 「여명의 눈동자」(1031), 1979.2.14.

54 「여명의 눈동자」(1032), 1979.2.15.

55 「여명의 눈동자」(972), 1978.12.3.

일본군 ‘위안부’를 수치로 여기는 쪽이나, 민족의 신화로 여기며 보호하려는 쪽이나, ‘위안부’ 피해자를 새 시대의 역사적 주체로서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는 상통한다. ‘위안부’를 역사적 사명을 둘러싼 대결구도로부터 배제하든, 혹은 신화화하여 역사로부터 초월하게 하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지금-여기의 역사적 주체의 자리에서 탈각되는 것이다. 따라서 (가)와 (나)는 표면적으로 혐오와 보호라는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결국 ‘위안부’ 피해자를 배제하고 타자화하는 두 개의 논리라 할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와 같은 타자화의 시각이 대치와 하림이 여옥과 맺는 섹슈얼한 관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다)

『보고 싶은데… 옷을 벗을 수 없겠소?』

하림의 요구에 여옥은 두손으로 젖무덤을 가린채 가만히 서있었다. 숨막힐듯한 긴장이 한참 동안 흐르다가 여옥의 움직임과 함께 깨어졌다.⁵⁶

(라)

『옷을 벗고 거기 서봐. 몸을 보고 싶으니까.』

『아이, 어떻게…』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있었다.

『부끄럽긴…. 어서 벗어봐. 자기 아내 몸을 보겠다는데 뭐가 이상해.』

대치가 이런 요구를 하기는 처음이었다. 여옥은 몹시 부끄러웠지만 싫지는 않았다.⁵⁷

56 「여명의 눈동자」(799), 1978.5.14.

57 「여명의 눈동자」(904), 1978.9.15.

소설 내내 모든 면에서 대조적으로 그려진 대치와 하림이지만, 성적인 장면에서 이들의 태도는 놀랍도록 유사하다. 해방 직후 여옥과 하림은 대치가 죽은 줄 알고 결혼을 하려 했었다. (다)는 여옥과 하림이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의 모습이다. 하림은 여옥에게 자신이 볼 수 있게 벌거벗은 채로 서 있어 달라고 부탁한다. '위안부' 피해를 외설적인 소재로 활용하고 있는 「여명의 눈동자」의 한계를 분명히 지적한 다음 해석을 좀 더 진전시켜 보면, 이 장면에서 제국의 폭력 아래에서 동류의식을 나누던 학병과 '위안부'가 해방공간에서 시선의 주체와 보이는 대상으로 분리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더욱 문제적인 것은 학병과 '위안부' 사이에 형성된 '보는 주체-벌거벗겨진 몸'이라는 권력관계가 식민지 시기 대치와 하림이 경험한 '일본군-조선인 학병', '미군-포로' 관계와 유사하다는 점이다. 조선인 학병들을 괴롭히던 오오에 오장은 대치에게 자신이 보는 데서 점령지 여성을 강간할 것을 명령하였다. 오오에의 명령으로 대치가 옷을 벗어야 했을 때, "아무리 같은 사내지만 강제로 하의를 벗기우고 그 앞에 남근과 엉덩이를 보이게 된 사실에 대치는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인해 벌겋게 달아올랐다."⁵⁸ 오오에는 대치를 벗게 함으로써 그가 자신의 권력 아래에 놓여 있음을 확인시키고, 대치는 점령지 여성을 강간함으로써 오오에와 같은 '점령군'이 되었다. 하림의 경우 또한 이와 유사하다. 하림이 OSS 요원이 되기 위해 심사를 받으러 갔을 때, 미군 심판관은 하림에게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다. 미군이 벌거벗겨진 하림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만질 때, 하림은 "수치심으로 …… 벌겋게 달아 오르고 있었다."⁵⁹ 검사가 끝난 뒤 미군은 하림을 "벗겨놓은 것은 … 육체를 검사하려는 이유도 있지만 그 보다는 … 솔직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사람은 옷을 벗겨놓으

58 「여명의 눈동자」(22), 1975.10.26.

59 「여명의 눈동자」(272), 1976.8.21.

면 입고 있을 때보다 솔직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⁶⁰ 미군 심판관의 말 대로 '벌거벗겨진 몸'은 바라보는 주체와 보이는 대상 사이의 권력관계를 선명하게 가시화하고, 이를 더욱 공고하게 만든다. 제국의 군대는 자신들의 권력을 과시하고, 식민지 청년들을 길들이기 위해 섹슈얼리티에 대한 폭력을 활용했다.

그렇다면 (다), (라)는 단지 '학병-위안부'의 연대적 관계가 위계적 관계로 재편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을 넘어, 그 권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이 제국의 폭력과 상당히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제국의 억압 아래에서 '학병-위안부'는 식민지 민족으로서 동류의식을 가졌지만, 해방공간에서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역사적 사명은 학병의 몫이 되었다. 학병들이 새로운 국가(건설) 세력이 되었다면, '위안부'는 또 다른 국가(건설) 세력에 의해 식민화된 셈이다. 해방 직후 하림이 독립국가 건설을 꿈꾸고, 대치가 공산국가 건설을 꿈꿀 때, 여옥 또한 "앞으로 나의 육체를 탐내는 남성들은 모두 나의 적이다"⁶¹라고 선언한 바 있다. 여성으로서의 주체화는 충분히 정치적인 선언이 될 수 있지만, 소설에 비추어 보건대 여옥의 "여자의 길"은 '아내의 길'로 회수된다.⁶² 그러나 해방공간에서 여옥의 활약은 가정 내 부인의 역할로만 한정되지 않는다. 하림과 대치가 미군정과 소련 공산당을 배후에 두고 대결할 때, 정작 양쪽 제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이는 여옥이었다. 그럼에도 해방공간에서 여옥의 역사적 자리가 주어지지 않은 것은 그녀가 '미군복'을 벗고 '아내의 길'로 돌아가려 한 것에 기인한다. 소설에서 그녀의 정치적 활약은 오직 대치의 '부인'으로서 대치

60 「여명의 눈동자」(275), 1976.8.25.

61 「여명의 눈동자」(716), 1978.2.3.

62 1978년 '사랑'이라는 소책자로 연재된 부분은 1979년 남도 출판사에서 출간된 단행본으로 옮겨지면서 '사랑의 길'과 '여자의 길'로 분리된다. 이때 '여자의 길'은 여옥이 대치의 부인으로서 남편의 뜻을 따르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국 남성의 군복을 벗은 여옥은 "여자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역사적 주체가 아니라 가정 내 주체로서 재정의된다.

를 돕는 일로 이해되고 만다.⁶³

문제는 '아내의 길'이 여옥의 정치적 주체성만을 박탈하는 게 아니라, 그녀에 대한 대치의 착취 또한 은폐한다는 점이다. 대치는 여옥에게 미군의 정보를 빼내 올 것을 요구했고, 여옥은 이 일이 내키지 않음에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말을 따랐다. 대치는 가장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음에도 아버지이자 남편의 권위를 내세웠다. 성적 관계의 측면에서도 대치는 다분히 여옥을 착취하였으나, 여옥은 이를 인지하지 못한다. 그것은 대치가 남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가부장제 규범은 대치가 여옥을 끊임없이 이용하게 하는 구실이 되어 주면서, 동시에 그 착취를 착취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은폐 기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여옥은 두 아들을 잃은 후에야 마침내 대치를 거절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인민군으로 내려온 대치가 6·25전쟁 중에 빨치산이 되어 찾아오자, 여옥은 또다시 그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여옥은 대치를 도와주기 위해 빨치산 무리를 토벌군 대장인 하림에게 알리지만, 이것이 배신행위로 간주되어 결국 여옥은 대치의 손에 죽게 된다. 이후 대치는 빨치산 동료들에게 버려지고, 곧 이어 미쳐 버린다. 하림은 대치에게 마지막 호의를 베풀어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여명의 눈동자」는 남쪽 체제를 택한 하림만 남기고 모두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시킨다. 소설의 마지막 문장은 여옥의

63 참고로 작가 김성중은 「여명의 눈동자」가 한창 연재되고 있던 1977년 6월, “여자는 비정치적(非政治的)이고 비역사적(非歷史的)”이기 마련이지만, 여옥만큼은 악조건 속에서도 예외적으로 “무서운 생명력으로 모든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는 인물로 그렸다고 밝힌다. 여옥은 “항일(抗日)이라고 하는 남성적인 분야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서 사랑의 포로가 되어버”림으로써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연재 초반에 이미 여옥의 죽음은 예견된 셈인데, 이러한 결말에 대해 작가는 “여자가 여자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충동, 그것보다 더 인간적인 것이 있을까”라고 반문한다. 즉, 여옥은 (제국 남성의 군복을 입은) ‘예외적 여자’로서 항일 운동에 참가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외적’ 삶일 뿐이고, “인간적 충동”으로서 ‘여자의 삶’을 찾으려 할 때 ‘위안부’ 피해자인 그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김성중(1977), 「역사에 침식 당한 여인상」, 『여자세계』(1977년 6월호), 여성세계사, pp. 78-79].

묘비문이다.

여옥의 무덤은 눈속에 들혀있었다. 얼마전에 세워준 조그만 돌비도 눈속에 서있었다. 그[하림-인용자]는 거기에 쌓인 눈을 손으로 쓸어냈다. 그리고 여옥의 얼굴을 어루만지듯 자꾸만 그 돌비를 어루만졌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있었다.

「윤여옥, 1928년 3월 5일~1951년 8월 9일」⁶⁴

“신화”라는 것이 본래 초월적 세계의 이야기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하림이 지키려고 했던 “신화”는 역설적으로 여옥의 죽음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대치가 말했던 “역사의 잔영으로 그늘에 숨어” 들어야 하는 ‘위안부’의 운명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하림과 대치의 상반된 태도는 결국 여옥의 존재가 하나의 비석으로, 민족수난사의 상징으로 물화(物化)됨으로써 합치된 셈이다. 물론 이 또한 여옥을 대상화·타자화했던 두 사람의 시선에서 예견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위안부’는 하림과 대치의 은밀한 바람처럼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실제 역사에선 여옥이 사망한 바로 그즈음 연합군/한국군 위안소가 세워졌다. “정부가 연합군 전용 위안소 설치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결정적 자료는 보건부가 1951년 10월 10일에 결재한 「청소 및 접객영업 위생사무 취급 요령 추가지시에 관한 건」(保防 제1726호)이다.”⁶⁵ 해방 이후 ‘위안부’ 제도는 남한 정부에 의해 계승·변형되었다. 소설은 조국이 지키지 못한 ‘단 한 명의 여자’의 죽음에 애달파 하였으나, 조국이 지키지 못한 여자는 ‘한 명’이 아니었다.

이와 같은 결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하나는

64 「여명의 눈동자」(1661), 1981.3.2.

65 박정미(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99.

실제 역사와는 다른 소설적 통합이 애초 소설 속에 예견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에서 군 '위안부' 제도가 존속된 것은 "미군정의 비호 하에 창설된 한국 군대의 주력은 일본군과 만주국군, 광복군 출신"들이 다수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6·25전쟁 당시 한 장교는 "군'위안부'를 이용하도록 지시를 내렸던 연대장이 관동군 출신자였으므로 군'위안부' 발상을 했다고 기억했다."⁶⁶ 그런데 「여명의 눈동자」는 새로운 국가 건설의 '적자'로서 학병을 호명하기 위해 남한 군대에 이어져 내려온 식민주의의 연속성을 삭제해 버렸다. 국가 건설 시기 남한 군·경의 지휘부에 자리 잡았던 일본군과 만주군 출신자 대신 탈영 학병 하림을 내세웠던 것이다. 식민주의의 잔재를 삭제하고자 했던 욕망은 그 의도와는 별개로 오히려 식민주의의 연속성을 은폐하는 기능을 하고 만 셈이다. 이때 은폐된 존재란 바로 여옥의 무덤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화도 역사도 되지 못했던 연합군/한국군 '위안부'들이다.

다른 하나는 「여명의 눈동자」에 '위안부' 피해자가 단 한 명만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소설은 남한에 계속해서 존재했던 군'위안부'만 은폐하는 게 아니라, 여옥 이외에 어떠한 일본군 '위안부'도 그리지 않는다. 위안소에서 다른 '위안부'들이 등장하긴 하지만, 그녀들 가운데 여옥 외에 귀환한 여자는 단 한 명도 없다. 하림이 학병 기피자들과 함께 부민관을 폭파하고, 대치가 귀환 학병들과 함께 제주에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지만, 여옥은 해방된 나라에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지닌 여자를 단 한 명도 만나지 못한다. '위안부' 피해자는 오직 한 명 여옥만이 존재한다. 학병들에겐 그들을 모이게 하는 역사적 과업이 주어지지만, '위안부' 피해자들을 만나게 하는 역사적·사회적 계기는 없다. 대신 여옥에게 주어진 것은 '아내의 길'이었다. 학병이 역사적 '사명'을 통해 세대로 구성된다면, '위안부' 피해자는 탈역사적인 여자의 '운명'으로 귀속되었다. 그러나 '위안부'에겐 이러한 운명조차도 가부장제 규범과 여성 섹슈얼리티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비극으로 끝나

66 김귀옥(2019), 『그곳에 한국군'위안부'가 있었다』, 선인, p. 167.

버리고 만다. 대신 이 비극적 운명을 통해 ‘위안부’는 민족수난사의 상징으로, 하나의 신화로 완성될 뿐이다.

5. ‘기림’의 정치를 넘어

여자대학 앞을 지날 때마다 나는 번번이 이런 생각을 했다. 지각있는 총장이라면 캠퍼스에 자기 동상을 세울 게 아니라 이역에서 비참하게 죽어간 중군위안부들의 넋을 달래주는 비를 세워 학생들에게 그 생생한 아픔을 전해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학생들이 모금해서 세울 수 있다면 더욱 뜻이 깊으련만. 중군 위안부-그는 바로 우리 어머니상 아닌가.⁶⁷

김성중은 소설 후기에서 ‘위안부’ 동상을 세워 그녀들의 아픔을 기렸으면 하는 뜻을 드러냈다. 그리고 보면 여옥이 ‘위안부’로 동원되는 장면에서 시작하여 그녀의 묘비문로 끝이 나는 「여명의 눈동자」야말로 김성중이 소설로써 세운 ‘위안부’ 기념비라 하겠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 민족수난의 상징이 된다는 것은 ‘위안부’ 존재가 역사 속으로 산화된 후에야 가능한 일이자, 동시에 상징의 그늘로써 살아 있는 ‘위안부’의 삶을 가리는 일이다. 하림과 대치 또한 여옥과 비슷한 나이에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되어 갖은 고생 끝에 귀환하였으나, 역사는 그들을 ‘기념비’와 같은 상징을 통해 기억하지 않는다. 그들은 식민지시기로부터 해방공간을 거쳐 국민국가가 건설되기까지 한국현대사의 파고와 함께 변화해 온 살아 있는 주체이자, 역사의 주역으로 기억된다. 이렇게 볼 때, ‘위안부’가 민족수난사의 상징이 된다는 것은 역사의 주체가 아닌 역사의 특정 국면만을 표상하는 하나의 정체성으로 고정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지점은 비단 「여

67 김성중(1982), p. 410.

명의 눈동자」의 서사의 한계가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의 기억의 정치가 오늘날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명의 눈동자」는 '위안부'를 '기림'으로써 그녀들의 서사를 단순화하는 인식적 기원의 한 단면을 보여 주는 텍스트라 할 수 있다.

이 글은 김성중의 「여명의 눈동자」를 통해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된 식민지 청년들, 즉 학병과 '위안부'가 해방공간과 국가 건설의 시기를 거치며 어떻게 다른 역사적·사회적 위치를 부여받는지 살펴보았다. 일제말기 전쟁에 동원된 학병과 '위안부'는 위안소라는 전시성폭력기구 속에서 '군인-위안부'라는 비대칭적 권력관계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민족으로서 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제국을 대타항으로 삼은 동류의식은 '제국-식민지'의 역학에 따라 변경될 수밖에 없었다. 해방공간에서 학병은 국가건설이라는 역사적 '사명'의 주체로 나아가지만, '위안부'는 다시금 여자의 '운명'에 종속된 것이다. 이때 새로운 시대를 식민주의와 단절한 세대로부터 시작하려는 「여명의 눈동자」의 서사적 기획은 해방공간의 좌우익 대결구도를 '학병 대 학병'으로 재편하고, 동시에 관동군·일본군 출신자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식민주의를 소거한다. 이러한 서사는 식민지 민족의 연대로부터 탈각된 '위안부'가 과거 민족수난의 상징으로 배제되는 과정을 드러낼 뿐 아니라, 이 땅에 계속해서 존재했던 군 '위안부'가 은폐되는 메커니즘을 보여 준다. 이 글은 '학병세대'로 대표되는 일제말기 청년의 표상에 '위안부'라는 존재가 누락되어 있음을 드러내고, 나아가 역사의 '상징'이 됨으로써 역사에서 배제되는 '기억의 정치'의 역설적인 메커니즘을 비판적으로 점검한다.

참고문헌

자료

- 김성중(1978~1982), 『여명의 눈동자』 1-10, 남도.
 김성중(1975~1981), 「여명의 눈동자」, 『일간스포츠』, 1975.10.1.~1981.3.2.
 『동아일보』, 『경향신문』, 『조선일보』, 『국제신문』

논저

- 권성훈(2023), 「김종학 드라마의 이데올로기 구조와 문학적 재현방식: <여명의 눈동자>(MBC, 1991)와 <모래시계>(SBS, 1995)를 중심으로」, 『비평문학』 89, 한국비평문학회.
- 김건우(2018), 「윤명과 원한」, 『서강인문논총』 52,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김건우(2017),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느티나무책방.
- 김귀옥(2019), 『그곳에 한국군 '위안부'가 있었다』, 선인.
- 김문숙·김성중·성병오·장정임 좌담(1992), 「끝나지않은 민족수난사, 완치는 스스로 갱해지는 길뿐」, 『現場』 3월호, 예술시대사.
- 김성중(1977), 「역사에 침식 당한 여인상」, 『여자세계』 6월호, 여성세계사.
- 김소륜(2018),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국제어문』 77, 국제어문학회.
- 김용철(2009), 「제주 4·3사건 초기 경비대와 무장대 협상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윤식(2015), 「한국 근대문학에서의 학병세대의 위상」, 『본질과현상』, 본질과 현상사.
- 김윤식(2012), 『한일 학병세대의 빛과 어둠』, 소명출판.
- 김익렬(1948), 「동란의 제주참전기, 제주연대장김익렬중령기(記)」(上-下), 『국제신문』, 1948.8.6.~8.
- 만하임, 카를(2013), 이남석 역, 『세대 문제』, 책세상.
- 박순동(1965), 「모멸의 시대」, 『신동아』 9월호, 동아일보사.
- 박정미(2011), 「한국 성매매정책에 관한 연구: '목인-관리 체제'의 변동과 성판매여성의 역사적 구성, 1945~2005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백기완(1977), 「인간 장준하: 고인의 이주기에 붙여서」, 『대화』 9월호, 한국크리스찬아카데미.
- 백두산(2018), 「민주화 이행기 텔레비전 드라마의 분단 재현 방식: <여명의 눈동자>를 중심으로」, 『스토리&이미지텔링』 15, 건국대학교 스토리앤이미지텔링연구소.
- 베닝하우스, 크리스티나(2014), 「세대의 성: 1930년대의 세대적 특성과 남성성의 관계」, 『세대란 무엇인가?』, 한울아카데미.
- 안동준(1987), 「서문」, 『1·20학병사기』 1(1·20동지회 편), 삼진출판사.

- 윤미향(2016), 『25년간의 수요일』, 사이행성.
- 이가형(1964), 「버마전선패잔기」, 『신동아』 11월호, 동아일보사.
- 이지은(2023), 「일본군 '위안부' 서사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재홍(2005), 「4.3의 두 얼굴, 김익렬과 박진경」, 『제주의 소리』, 2005.4.6.
- 이춘영(1946), 「학병은 도라왔습니다」, 『학병』(창간호), 학병동맹본부.
- 임종국(1966), 『친일문학론』, 평화출판사.
- 장수희(2023), 「여명의 눈동자들: 일본군 '위안부' 서사의 시대 번역과 월경」, 『한국연구』 15, 한국연구원.
- 장수희(2021), 「일본군 '위안부' 서사자료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석균(2002), 「제주 4·3사건시 군·경의 토벌작전」, 『군사』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제민일보 4·3 취재반(1997), 『4·3은 말한다』 2, 전예원.
- 조성운(2021), 「『슬픈 조국의 노래』를 통해 본 趙文紀의 독립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 장준하(1992), 『돌베개』, 세계사.
- 정석균(2002), 「제주 4·3사건시 군·경의 토벌작전」, 『군사』 4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허은(2002), 『냉전과 새마을』, 창비.

원고 접수일: 2024년 1월 22일,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3일, 게재 확정일: 2024년 2월 6일

ABSTRACT

The Mission of the Student Soldiers and the Fate of the 'Comfort Women'

Lee, Jieun*

This article analyzes Kim Sung-jon's novel "The Eyes of Dawn" to examine how student soldiers and 'comfort women', who were forcibly mobilized in the imperial war, are given different historical and social positions through the post-liberation and the Korean War.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student soldiers and 'comfort women' have a sense of solidarity as colonial peoples despite the asymmetric power relationship of 'comfort women' in the wartime violence organization called *wianso* (慰安所, brothels). However, the solidarity formed as a counterpoint to the empire had no choice but to change according to the dynamics of 'imperial-colonial'. In the post-liberation period, student soldiers advance as the subject of the historical 'mission' of nation-building, but 'comfort women' are again subordinated to the woman's 'fate'. At this time, the novel's strategy to start a new era with a new generation reorganizes the structure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left and right wings during the post-liberation into 'student soldiers vs. student soldier'. Through this, colonialism that has been passed down from those

* Senior Researcher, Institute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from the Japanese military is eliminated. These narratives show that 'comfort women', who were removed from the solidarity of the colonial people, were excluded from the present history by becoming a symbol of the past. In addition, it shows a mechanism by which the Allied/Korean military 'comfort women' that continued to exist on the Korean Peninsula were concealed. This article reveals that 'comfort women' were omitted from the representation of young people at the e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represented by 'student soldier'. Furthermore, it critically examines the paradoxical mechanism of 'politics of memory' in which by becoming a 'symbol' of history, one is excluded from history.

Keywords 'Comfort Women', Student Soldiers, the Pacific War, the Politics of Memory, Kim Sung-jong, "The Eyes of Dawn"

